

# 아시아 언론, 다시 5·18을 주목하다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 방문...5월 현장 둘러보고 광주 정신 재조명  
지난 2월 도쿄 TV·3월 홍콩 10여개 언론사 등 잇따라 방문 취재  
외국서 갈수록 많은 관심...5·18 망언 등 국내 5월정신 훼손과 대조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1년 앞두고 아시아 언론들이 광주에 주목하고 있다. 각국 취재진은 광주 오월 정신을 재조명하고, 자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

4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만난 일본 아사히신문 에리카 토 기자와 타카유키 카쿠노 사진기자는 1980년 5월 광주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에리카 토 기자는 "지난해 영화 '택시운전사'가 일본에서 개봉한 이후 일본 내에서 5·18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5·18 당시 아사히신문 취재진도 광주 5월을 경험하고 보도했다. 39년 만에 5·18 현장을 일본국민에게 다시금 소개하고 광주의 대중 정신을 재조명 할 예정"이라고 광주 방문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택시기사 장훈명(67)씨를 만나 5·18 당시 택시 시위에 대해 들은 아사히신문 취재진은 오후에는 5·18기록관에서 나경택 옛 전남매일신문(광주일보 전신) 사진기자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저자 이재의씨를 인터뷰하는 등 바쁜 취재 일정을 이어갔다.

지난 3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에 머물고 있는 아사히신문 취재진은 금남로와 5·18민주광장, 국립5·18민주묘지 등 5월 현장을 방문하고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 관계자와 당시 취재기자들, 광주시민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980년 5월 23일과 24일자 등 두차례에 걸쳐 5·18을 보도했으며, 24일자에선 계엄사령부의 발표대로 5·18을 폭동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번에 방문한 취재진은 그동안 밝혀졌던 5·18의 진상을 토대로 잘못된 보도내용을 바로잡고 자국에 광주의 진실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에리카 토 기자는 "5·18때 독일기자 힌츠페터뿐만 아니라 아사히신문 취재진도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의 참상을 보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알아줬으면 한다"면서 "남은 기간 충실히 취재해 5·18 진실을 새롭게 알리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홍콩 10여개 언론사 기자 20여명이 광주를 찾아 5·18을 취재했다.

홍콩 언론은 올해 '천안문 사건'(1989년 6월4일) 30주년을 맞아 광주의 저항정신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들은 서울 퍼런신군부의 압박에도 5·18을 보도한 옛 전남일보·옛 전남매일신문(광주일보 전신) 출신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천안문 사건' 언급을 여전히 금기시하는 중국 언론 현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일본 도쿄 TV의 교양 프로그램인 '이케가미 야기라의 현대사를 걷다' 제작진이 광주를 방문·취재한 뒤 고난의 한국 민주화 과정을 소개하면서 대표적 사례로 5·18을 집중 조명했다.

5·18기록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국회의원이 5·18관련 망언을 하는 등 5·18 정신을 훼손하려는 분위기도 있지만, 오히려 외국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5·18과 그 정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의 언론도 오월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좀 더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4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일본 아사히신문 소속 타카유키 카쿠노 사진기자와 에리카 토 기자가 나경택 옛 전남매일신문(광주일보 전신) 사진기자에게 5·18에 대해 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인권운동 대부' 고홍남순 변호사 5·18 재심에서 39년만에 '무죄'

광주지법 "헌정질서 수호 행위" 광주지검, 직권 재심청구 성과



행위"라면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인권운동 대부' 고(故) 홍남순 변호사(사진)가 39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무죄판결은 광주지검이 전국 최초로 5·18 관련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재심을 받지 않은 유일한 피해자를 발굴해 직권으로 재심청구 절차를 진행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게 지역사회 반응이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각업)는 "내란중요임무중사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10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홍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민수습위원회로 함께 활동한 이모(1980년 당시 65세·사망)씨와, 시위에 참여해 광주교도소를 향해 칼빈소총 2발을 발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임모(64)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의 행위 시기와 동기, 사용수단, 결과 등을 볼 때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1980년 5월 시 최초로 5·18 관련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재심을 받지 않은 유일한 피해자를 발굴해 직권으로 재심청구 절차를 진행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게 지역사회 반응이다.

판사 출신인 홍 변호사는 1963년 호남 민주화운동의 산실로 불리는 광주시 동구 공동가옥에 사무실을 열고 양심수 변론을 맡는 등 인권변호사 활동과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이후 5·18 광주수습자협의회 회장, 5·18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회 및 위령탑 건립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5·18 진상규명과 시민 명예회복 활동을 하다가 2006년 타계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5·18 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재심을 받지 않은 111명(사망 36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 청구 절차를 진행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여행사에 뒷돈 받은 혐의 전북도의회 의장 기소

전주지검은 4일 의원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송성환(49) 전북도의회 의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송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전주 모 여행사 대표 조모씨도 불구속기소했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조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장이 직무와 관련해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를 받았고 설명했다. 당시 송 의장 등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송 의장은 직원을 통해 현금을 받았고, 여행을 떠나는 날에 직접 유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받은 돈 일부는 다른 의원들의 여행비로 대납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연합뉴스

## '가져가지 마시오' 적힌 화분 가져갔는데... '문맹 할머니' 선처



○... '가져가지 마시오' 라고 적힌 화분을 가져간 70대 할머니가 문맹임에 밝혀져 경찰로부터 선처.

○4일 광주관광경찰에 따르면 A(여·78) 할머니는 지난 2일 오전 10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한 주택 앞 골목에 놓아둔 빈 화분 4개를 가져갔다는 것.

○... 폐집 수집을 하며 생계를 이어간 A 할머니는 글을 읽지 못해 '가져가지 마시오'라고 적힌 빈 화분 4개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글을 읽을 줄 알았으면 안 가져갔을 것'이라며 빈 화분을 돌려줬다"면서 "행정기관과 협의해 A씨가 한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 '마약 혐의' 체포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4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후 황씨가 입원해 있는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황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황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 수사 중이었다.

해당 첩보에는 서울 종로경찰이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황씨의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는 물론 다른 마약 관련 혐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첩보 입수 후 두 차례에 걸쳐 황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 지 수년이 지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모두 반려했다. 그러나 이날 황씨가 체포됨에 따라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A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께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 로이킴도 단톡방에 음란물 올려...경찰, 유포 혐의 입건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6)이 정준영(30)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음란물(사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로이킴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로이킴이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촬영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이 단톡방에 성관계 동영상 등 몰래 촬영해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준영과 버닝썬 직원 김모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와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중훈(29)도 불법 촬영물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승리와 정준영, 최중훈 등이 불법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는 데 사용된 카카오톡 대화방은 총 23곳으로,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16명이며 이 가운데 입건자는 8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정준영 등과 함께 대화방에 있던 연예인들은 가수 정진운과 강인·이종현·윤준형, 모델 이철우 등이다. 이 가운데 이종현과 윤준형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정진운과 이철우, 강인은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 수목장(묘정리·이장·안치)

**방치된 묘지 70%(추정)**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빛채기 마세모  
빛기마세모  
자연에서 기억하세모  
사랑은 원래 자연입니다

- 자연장의 장점 •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랜드피아 1011호

☎ (062) 372-7878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